

2 라파엘이 만난 사람

지역의료의 성공사례 - 김인권 원장

4 라파엘 클리닉

프리메드 아카데미 어머니회 설맞이 떡 나눔 행사
환자지원소식
환우들의 편지

6 라파엘 인터내셔널

2019 라파엘몽골리아 의료봉사단 무료진료 사업 성료
2020 필리핀 마닐라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8 라파엘 나눔

에스더포몰러(주) 후원금 전달식
한국병원약사회 후원금 전달식
라파엘 작은 연주회 - '라파엘 기타양상블' 공연
한성구 교수의 그림이야기 - '아버지와 아들'
한성구 교수의 '제멋대로 여행기' - 프라하의 천문시계

라파엘 특

허석훈 루카 영성위원장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철학과 교수

일상의 힘

중국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우려로 우리나라 사회도 꽤 뒤숭숭합니다. 당연하겠지요. 누구에게나 아픔과 고통은 피해야 할 무엇일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얼마 전 방송을 통해 중국의 한 여린 간호사 선생님이 방호복을 빨리 입기 위해 머리를 삭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누군가는 중국의 현재 상황을 싸잡아 비판하고 있지만, 그 아비규환 속에서도 지금의 재난과 싸우기 위해 용감히 나서고, 자신의 희생을 기꺼워하는 분들의 모습이 매우 아름답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세상에 신종 바이러스의 상황을 알고자 했던 의사 선생님, 82세의 나이에 다시 환자들을 돌보아야 한다고 의료현장으로 복귀 하시려는 선생님, 곱게 기른 긴 생머리를 자르거나 삭발하는 의료진의 모습을 보면서, 같은 상황에 대처하는 다른 마음가짐에 '지금의 내 마음은 어디에 있는가?'를 성찰해 보게 됩니다.

함부로 누군가의 비겁함을 탓하기보다는 지금의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선택하여 세상에 응답하는 모습은 세상의 모든 현장에 있습니다. 그 힘은 그저 상황이 되었기 때문만은 아닐 것입니다. 대단한 각오로 바이러스와의 싸움에 임하는 의료진 가운데는 눈물로 고통을 호소하며, 그 현장을 피하고 싶어 울부짖는 의료진도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다른 반응을 할 수 있는 힘은, 평온한 일상을 살아낸 힘에서 오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꾸준히 지금의 자리를 지키는 일상의 힘이 그 일상을 넘어서는 비밀상의 두려움과 공포에 맞설 힘을 우리에게 선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파엘 생명과 나눔 시니어 아카데미 건강과 사회 종강식 특강으로 진행되었던 김인권 원장의 강의내용을 요약하여 전해드립니다.

지역의료의 성공사례

김인권 원장

여수애양병원 명예원장
한센복지협회 회장
現 용인에스병원 병원장

‘지역의료의 성공사례’라고 강의 주제를 선정했는데, 거창하게 보이지만 사실 그렇게 대단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공사례’와 같은 좀 과한 이야기는 나중에 미루고 그냥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게요.

저는 현재 용인 에스병원의 병원장이자, 여수 애양병원 명예원장 및 한센복지협회 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인권입니다. 사실은 여수 애양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하다가 퇴직했습니다. 병원을 떠나오면서 어디서 살 것인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대도시로 갈까 생각도 해봤지만, 오랫동안 기르던 나무와 반려견도 있고, 시골에 오래 살아서 도시에는 적응이 안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처갓집 근처의 온양에 터를 잡았습니다.

애양병원 퇴직 후에 어떤 병원에서 받아줄까 싶었는데, 지금의 병원에서 저를 병원장까지 만들어 주셨네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토요일도 가서 수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집사람은 싫어하지만, 저는 아직까지 환자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저는 1977년에 약 2개월간 국립소록도 병원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소록도는 한센인들이 모여 사는 곳입니다. 제가 의사면허를 딸 당시에는 레지던트 4년차를 이수하려면 6개월 동안 무의촌에서 진료를 해야 했습니다. 저를 아끼시는 교수님께서도 ‘전염의 위험성이 있으니, 가지 마라’고 말렸고, 저 또한 두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의사인데 환자를 피하는 것은 제 자신에게 떳떳하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센병을 일으키는 나균은 전염성이 크지 않고, 초기에 치료한다면 큰 후유증 없이 낫는 병인데, 한센인에 대한 인식이 워낙 좋지 않다 보니,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에 참 마음이 아팠기 때문에, 제가 가면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많겠다고 생각해서 가야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렇게 두 달간의 소록도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 선택은 삶의 행로를 정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후 공중보건의로 다시 소록도를 찾아 3년동안 근무를 했습니다. 한센인들은 신경에 마비가 오는 증상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손발이 구부러지고 피부의 궤양이 생겨도 알아채지 못합니다. 또한 자율신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땀이 나지 않게 될 확률이 큼니다. 저는 관절의 변형이 온 환자들에게 관절을 펴주는 수술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소록도에 처음 갔을 때는 막막했습니다. 실제 경험도 없고 학교에서 배운 바가 없어서 외국의 책 등을 참고하여 방법을 고안해야만 했습니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 시절이었으니, 수술기구도 변변치 않았습니. 하지만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창고를 뒤져가며 기구를 찾아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소록도에서 공중보건의 생활을 마친 후, 여수 애양병원의 과장으로 부임했습니다. 여수 애양병원은 목포에서 의료선교를 하던 의사 윌리 포 사이트가 길가에 쓰러져 있던 한센인을 발견하여 진찰을 한 것이 애양병원의 시초입니다. 이후 로버트 윌슨이라는 의사가 포사이트를 기리기 위해 설립한 광주나병원이 여수로 이전하면서 지금의 애양병원이 되었습니다.

제가 애양병원에 처음 부임을 했을 때는 DDS (한센병 치료제)의 도입으로 우리나라 한센병 환자들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신 소아마비 후유증 환자와 지체장애인의 재활수술을 전문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소아마비 예방 백신이 개발되면서, 80년대 후반부터는 인공관절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초창기에는 한국의 의료기술이 미흡하여 미국 선교부를 통해 인공관절 기구와 함께 기술을 전수 받았었는데, 지금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인공관절 수술이 이루어지는 병원이 되었습니다.

애양병원은 가난한 환자에게 저렴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또 그마저도 부담이 되는 환자에게 사정을 살펴 의사의 재량으로 감면해 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병원 경영상으로는 무리가 있었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많은 일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의료 수가를 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병원이 언제까지 견딜 지는 몰라도 가난한 환자들을 위해서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애양병원의 정신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검사만 실시하고, 입원환자의 수도 줄입니다. 하루에 수술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술을 부실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오랫동안 함께 한 팀원들과 많은 수술을 진행했기 때문에 오히려 효율적인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애양병원이 다른 나라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의료수준이 열악한 나라의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988년 케냐를 시작으로 파키스탄, 미얀마 등 20년 동안 7개국을 돌면서 해외의료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회성에 그치는 지원이 아닌, 현지 거점병원과 협력을 해서 적어도 5년 이상 지원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여러 의사들이 뜻을 같이 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기억에 남는 환자로는, 2017년 서울대학교 이종욱 교수팀과의 협업으로 라오스 미타팜병원에서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걸을 때 쪼그리고 걸어야 하는 청년을 수술했습니다. 나중에 그 청년이 편지와 함께 자신의 사진을 보내 왔는데, 구부정하지만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런 편지를 받을 때 마다 도와줄 수 있어서 참 다행이며, 기쁜 마음입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일을 즐기면서 다른 이들도 도울 수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제 기운이 닿는 데까지 환자를 보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프리메드 아카데미 어머니회 설맞이 떡 나눔 행사

지난 1월 26일, 설 연휴에 라파엘센터에서 설맞이 떡 나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센터를 찾은 외국인 근로자와 봉사자들에게 총 300인분의 콩설기 떡을 나눠주었습니다.

떡 나눔 행사에 참가한 A씨는 “이번 설에도 맛있는 떡을 나눠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의 따뜻한 정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프리메드 어머니회에서 후원하였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환자 지원 소식

월	지원 내용	지원 금액
12월	(필리핀/1963년/여) 내과 진료비	153,720원
	(이란/1967년/남) 신경과 검사비	576,410원
	(나이지리아/1973년/남) 내과 진료비	33,080원
	(나이지리아/1968년/남) 내과 진료비	153,725원
	(나이지리아/1968년/남) 내과 진료비	515,080원
	(파키스탄/1982년/남) 정형외과 진료비	213,636원
	(몽골/1986년/여) 정형외과 진료비	241,300원
	(중국/1954년/남) 신경외과 진료비	241,300원
	(중국/1979년/여) 내과 진료비	172,100원
	(중국/1979년/여) 내과 진료비	98,100원
(방글라데시/1982년/남) 내과 진료비	97,700원	
	소계	2,496,151원
이동클리닉	총복 외국인 무료진료 독감백신접종	485,365원
	계	2,981,516원

환우들의 편지

지난 6월 라파엘소식에 사연이 소개되었던 ‘오쿠디리 선데이(Okwudiri Sunday, 44세)’씨가 감사편지를 들고 라파엘센터를 찾아왔습니다.

나이지리아 출신인 오쿠디리 선데이씨는 올해 초, 심장병 진단을 받고 서둘러 수술을 해야 하는 상태였지만, 일용직으로 간신히 생계를 이어가는 그에게는 수술비를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행히 cpbc가톨릭평화방송을 통해 모인 성금과 라파엘클리닉의 후원으로 무사히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선데이씨의 쾌유를 축하하며, 응원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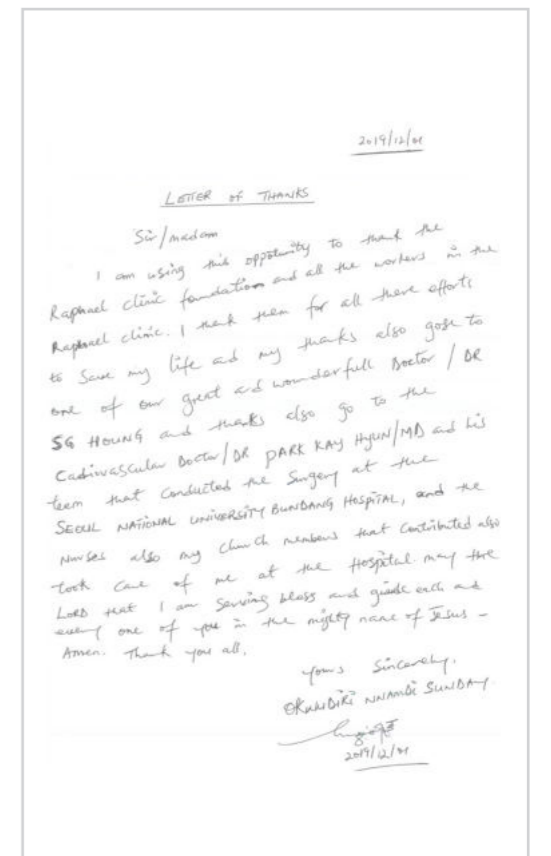


이 편지를 빌려 라파엘클리닉과 그 직원들께 감사
를 드립니다. 먼저, 저를 살리기 위해 들었던 그들
의 모든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훌륭
하고 멋진 의사 선생님이신 홍석근 선생님과 분당
서울대병원 흉부외과 박계현 선생님, 그리고 수
술에 함께한 그의 팀원들과 간호사분들께도 감
사합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에 저를 극진히
간호해 준 저의 교회 친구들에게도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이 모든 분들에게 전지전능한 주님의 은총
과 가호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 번 모두들 감사합니다.

- 오쿠디리 선데이 올림



2019 라파엘 몽골리아 의료 봉사단 무료진료 사업 성료

라파엘몽골리아는 2019년 12월 7일 성긴하이르항구 26동 가정병원에서의 6차 무료진료를 끝으로 2019년 무료진료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몽골 의료진으로 구성된 라파엘몽골리아 의료봉사단은 2019년 한 해 동안 울란바타르에서 가깝게는 30km 떨어진 날라이흐구부터 멀게는 670km 떨어진 수흐바타르 영경숨까지 총 6곳을 찾아가 지역주민들에게 무료진료와 보건교육을 제공했습니다. 6회의 무료진료 동안 총 4,253건을 진단 및 진료하였으며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에게 목 디스크 예방, 구강건강, 면역력 강화 등에 대해 교육했습니다.

봉사단의 역량강화를 위해 봉사단 자체적으로 팀빌딩 워크숍을 진행하였으며 한국어 수업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라파엘인터내셔널에서는 2019년 10월 가정의학과 전문의와 함께 현장을 모니터링 방문하였고 사업이 체계적이며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초기 40여 명에 불과했던 라파엘몽골리아 의료봉사단은 팀워크 향상 및 역량강화에 힘입어 현재 몽골 제 1, 2, 3병원 의료진, 몽골의과대학교 학생 등 120여 명으로 성장했습니다. 또한 매회 5~7명의 의료진이 봉사단에 합류하고 있습니다.

무료진료 사업을 후원해주신 바보의나눔, EPKOREA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라파엘몽골리아 의료봉사단과 무료진료 사업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20 필리핀 마닐라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라파엘인터내셔널은 지난 1월 10일부터 15일까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 간호대학 가톨릭동아리 CaSA와 함께 '2020 필리핀 마닐라 청소년 건강증진사업'을 진행했습니다.

필리핀 카비테주 실랑지역 마리아수녀회 소년 · 소녀의 집 학생들에게 무료진료와 보건교육을 제공하는 본 사업은 올해로 9년째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총 30명의 봉사단(의료진 6명: 내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약사 1명, 의대생 21명, 지도신부 1명, 실무진 1명)이 참가하여 총 589명의 학생을 진료하고 56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Tall 화산의 폭발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필리핀 학생들을 위하여 힘써주신 봉사단, 후원해주신 바보의나눔, 그리고 봉사단의 안전한 귀국을 위해 힘써주신 마리아수녀회 수녀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에스더포물러(주) 후원금 기증식

지난 12월 6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국제관에서 에스더포물러(주)의 후원금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기증식에는 여에스더 에스더포물러(주)대표, 이종욱글로벌의학센터 김웅한 센터장, 라파엘나눔 김전 이사장이 참석했습니다.

후원금은 해외저개발국 소아심장수술 사업지원을 위해 쓰일 계획입니다. 다시 한 번 에스더포물러(주)의 후원에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한국병원 약사회 후원금 전달식

지난 12월 19일, 서울대학교병원에서 한국병원약사회의 후원금 전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전달식에서는 재단법인 라파엘나눔 안구리 상임이사과 한국병원약사회 조윤희 보험이사, 서성연 기획부위원장, 천승연 홍보위원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한국병원약사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라파엘 작은 연주회

‘라파엘 기타앙상블’ 공연

지난 1월 12일 일요일, ‘라파엘 기타앙상블’의 공연이 라파엘센터 지하 1층에서 열렸습니다. ‘라파엘 기타앙상블’팀은 임은교 라파엘님을 포함, 총 14명의 기타연주자와 1명의 타악기 연주자로 구성된 연주 팀입니다.

이날 공연은 클래식 음악, 오페라 주제곡 등 연주 곡으로 많이 쓰이는 곡뿐만 아니라, 영국 밴드 ‘Queen’의 앨범 수록 곡, 가수 ‘양희은’, ‘김연자’ 등 대중가수의 곡 등 다양한 장르의 곡들을 연주하여 관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연주를 통해 라파엘을 찾은 환자 및 봉사자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물해 주신 ‘라파엘 기타앙상블’ 팀께 감사드립니다.



한성구 교수의 그림이야기

‘아버지와 아들’

지난 1월 13일, ‘한성구 교수의 그림이야기’의 2020년 새해 첫 강기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아버지와 아들’로, 부자 관계를 그린 다양한 작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노르웨이 오슬로에 있는 비겔란 조각공원의 여러 작품들을 함께 감상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다정한 모습을 주로 담은 조각상이 많았지만, 반면에 아버지가 아들을 발로 가격하거나 손으로 때리는 장면을 그대로 묘사한 생동감 넘치는 조각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인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한 작가로 꼽히는 노먼 록웰의 작품들도 만나봤습니다. 대학 진학을 위해 집을 떠나서 설레는 모습의 아들과 이와 대조적으로 쓸쓸하고 아쉬운 표정의 아버지를 나타낸 ‘Breaking Home Ties’라는 대표작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밖에도 록웰의 ‘아버지와 아들’을 주제로 한 다양한 작품을 함께 보았습니다.

이 밖에도 온갖 일을 겪고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담아낸 램브란트의 작품, 자신의 아이를 잡아 먹는 사투르누스를 그린 루벤스의 작품 등, 아버지와 아들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낸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수강생은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표현한 작품을 다양하게 감상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화가가 자신의 아들을 그린 작품을 볼 때는 저 또한 부모의 마음으로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정말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강의신청 및 문의: 02-744-7595



라파엘 생명과 나눔 시니어 아카데미 종강식

지난 12월 18일,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임상 제2강의실에서 2019년 2학기 라파엘 생명과 나눔 시니어 아카데미 - '건강과 사회'의 종강식이 있었습니다. 라파엘나눔 김전 이사장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아카데미 학기 과정에 70% 이상 출석한 수강생을 대상으로 수료증 교부와 개근자 4명에게 감사패 수여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시상식에는 라파엘나눔 상임이사이자 '건강과 사회' 과정 책임교수인 안규리 교수가 나서 수상자들에게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학기를 같이 들었던 전체 수강생들의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것으로 종강식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종강식 이후에는 이번 학기의 마지막 강의인 '종강기념 특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종강식 특강은 김인권 前 여수 애양병원장을 초청하여 '지역의료의 성공사례'를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김인권 원장은 국내 인공관절 분야의 대가로, 사회복지법인 여수 애양병원에서 한센병과 소아마비 환자 등 소외계층을 위한 따뜻한 의술을 펼쳐왔습니다.

학기 마무리를 특강으로 빛내주신 김인권 원장님과 과정을 성실히 이수하고 종강식에 참석한 수료생들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한성구 교수의 '제멋대로 여행기'

프라하의 천문시계

프라하는 환상적인 도시이다. 볼 것도 많고 즐길 곳도 많다. 구 시청 주변은 여행자가 항상 붐비는 곳이다. 구 시청사에는 그 유명한 천문시계가 있다. 1410년에 제작 되었다니 세계에서 세 번째로 만들어진 것인데, 현재까지 작동하는 것 중에서는 제일 오래 된 것이란다. 700년도 넘었는데 끄떡없이 시간을 보여준다. 물론 중간중간에 고장도 나고 수리도 했단다. 보헤미아의 정밀 공업은 중세부터 정평이 나있다. 20세기 초, 체코제 기관총은 세계를 석권하였는데 이런 전통이 있었던 것이다.



▲ 프라하의 천문시계. 맨 위에는 해와 달의 위치와 천문 정보를 보여주고 두 번째는 매 시간 사도들의 행진을 보여준다. 맨 밑에는 달력 눈금판이라고 하는데, 이해하기가 좀 어렵다.

이 천문시계에 여행자들이 몰리는 이유는 이것이 아름답고 오래되기도 했지만 매 시각 정시에 보여주는 재미있는 인형들의 움직임이 큰 역할을 한다. 시계 옆에는 인형이 넷이 있다. 우선 오른쪽 둘을 보면 해골이 보인다. 해골이 들고 있는 것은 모래시계이다. 그 옆에 있는 인형은 터번을 쓰고 있다. 그 당시 오스만 터키는 동유럽을 지배하고 있었고 중부 유럽도 상당히 압박을 받고 있던 시절이다. 따라서 터번을 쓰고 있는 터키 사람은 힘센 사람, 즉 강패를 상징한다. 반대편 가장 왼쪽의 인형은 거울을 보고 있다. 멋쟁이, 잘생긴 사람, 그리고 허영을 뜻하는 인형이다. 그 옆의 인형은 돈주머니를 들고 있다. 잘 보면 좀 욕심이 있어 보인다. 바로 부자이다.



▲ 천문시계의 위에는 네 개의 인형이 있다. 허영에 들뜬 멋쟁이, 욕심 많은 부자, 힘센 강패 그리고 죽음을 상징하는 해골이 있다.

위의 네 인형은 매 시간 정각이 되면 소리가 나면서 해골이 술술 춤을 추기 시작한다. 그러면서 모래시계를 보여준다. '이제 시간이 되었다.', '나를 따라 가자.'는 뜻이다. 그러면 나머지 셋은 고개를 살랑살랑 흔든다. '싫어요.', '나는 죽기 싫어요.' 이런 뜻인 것 같아 보는 사람의 웃음을 자아낸다. 죽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으랴. 모인 사람들은 다들 카메라를 꺼내 찍기 시작하는데 웃는 사람은 극소수이고 대부분은 자못 심각하다. "그냥 보고 웃으면 되는 거예요."라고 해주고 싶다.



▲ 천문시계의 인형을 더 잘 보이게 찍은 사진. 거울을 들고 있는 잘생긴 멋쟁이와 돈주머니를 들고 있는 허영심 많고 탐욕스러운 부자.



▲ 매 정시에는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든다. 죽음과 세 부류의 인간들이 욕심각신 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이 포인트. 좀 웃으면서 봐도 좋을 텐데 대부분의 여행자는 심각하다.



중세 이후 유럽에서 모래시계와 해골은 ‘인간은 유한한 존재이며, 언젠가는 죽는 존재’임을 상징했다. ‘교만하지 마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이런 상징을 많이 쓴다.

‘Hans Baldung’이라는 화가가 그린 ‘세 시기의 여자와 죽음’이라는 그림을 보면 어린 아이가 있고 젊은 여인, 늙은 여인과 해골의 순서로 서 있다. 해골은 당연히 모래시계를 들고 있다. 해골은 나이 든 여인의 팔짱을 낀다. “이제 시간이 되었네. 가십시오.” 하는데 저 할머니는 갈 생각이 없다. 아주 단호한 표정이 보인다. 죽음을 따라 가는 대신에 젊은 여인의 옷깃을 꼭 잡고 젊은 여인의 어깨에 손을 얹는다. 젊은 여인은 이것이 달갑지 않다. 아무도 죽고 싶은 사람은 없는 것이다. 해골은 젊은 여인과 늙은 여인의 실랑이를 짐짓 못 본 체한다.

◀ Hans Baldung: Three Ages and Death. 1510 Museo del Prado, Madrid. 아무도 죽고 싶은 사람은 없지만 누구든 결국은 따라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죽음이다.



▲ 정시에 천문시계가 있는 구 시청에서 천문시계 인형의 퍼포먼스 보기를 포기하고 시청으로 올라가면 이런 사람 구경을 할 수 있다. 사진 왼쪽 아래에 인파를 헤치고 마차가 지나가고 있다.

사람구경을 좋아하는 여행자라면 천문시계가 있는 구 시청사를 올라 가기를 권한다. 그 곳에서 내려다 보면 구름같이 모인 사람들을 볼 수 있다. 사람 구경도 제법 재미가 있다.

12월, 1월 진료에 수고해주신 진료부와 진행부

Table with columns for '진료부' (Clinical Department) and '진행부' (Progress Department). The Clinical Department lists various medical specialties and their staff members. The Progress Department lists administrative and support staff.

Table with columns for '총괄' (Overall), '실행위원' (Implementation Committee), '의과대학·간호대학' (Medical and Nursing Schools), '일반봉사자' (General Volunteers), '동역' (Partners), '나눔터' (Sharing Space), '동두천안내' (Dongducheon Guide), '미사집전내' (Mission Station), '법률상담' (Legal Consultation), '사무국 봉사' (Office Service), '한글 교육' (Korean Language Education), '환경' (Environment), '사진촬영' (Photography), '의료기기유지보수' (Medical Equipment Maintenance), and '전세 진행' (Event Progress). Each column lists names of staff and volunteers.

2019년 12월 ~ 2020년 1월의 라파엘 천사입니다.

라파엘 클리닉

Table listing names of donors and recipients for the Raphael Clinic, organized in columns.

라파엘 인터내셔널

Table listing names of donors and recipients for Raphael International, organized in columns.

라파엘나눔

Large table listing names of donors and recipients for Raphael Nalnim, organized in columns.

* 후원자 명단에서 누락되신 분들은 라파엘나눔 사무국(02-744-7595)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